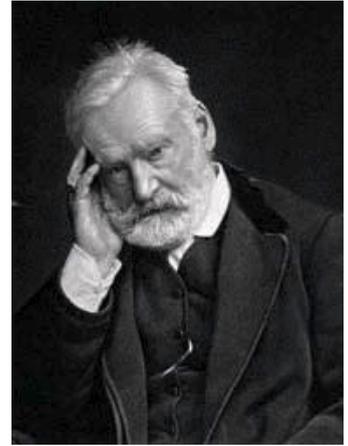


빅토르 위고의 ‘노트르담 드 파리’



빅토르 위고 사진 (1883년, 82세)

글 | 이 광 _ 계명대학교 화학과 명예교수 klee179@kmu.ac.kr

빅토르 위고는 프랑스의 시인이자 극작가이며 소설가다. ‘노트르담의 꼽추’로 널리 알려진 ‘노트르담 드 파리’는 영화와 뮤지컬, 만화영화로도 만들어져 전세계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의 비천한 신분(부랑자, 꼽추, 집시)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 불의에 대한 거부 때문에 빅토르 위고는 ‘민중의 보호자’라는 이미지를 얻게 된다. 이 소설의 인도주의적 성격은 19세기 초엽에 태어나 말엽에 숨을 거둔 위고의 생애가 1830년 7월 혁명 등 프랑스의 정치적 격동기에 가로놓여 있다는 것과는 무관하지 않다.

영화와 뮤지컬, 만화영화로도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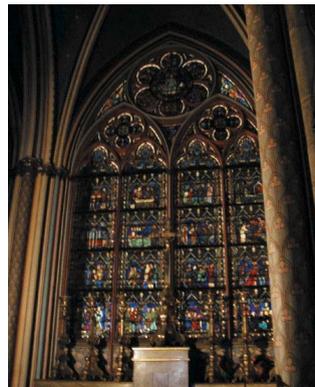
이 소설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노트르담 대성당의 부주교 클로드 프롤로는 학문에 탐닉하는 것에서만 자신의 행복이 있다고 믿어온 사람이다. 그러나 16세의 예쁜 보헤미아 아가씨 에스메랄다를 보고 감추어져 있었던 격렬한 정열을 느끼게 된다. 그는 자신이 키웠으며 자신에게 아주 헌신적인 노트르담의 종치기인 꼽추 콰지모도를 시켜 에스메랄다를 납치하게 하지만, 납치 도중 에스메랄다는

근위 순찰대장인 미남자 페뷔스에 의해 구출되고, 이 남자에게 반한다.

클로드는 이 남자에 대한 질투심과 에스메랄다에 대한 광포한 사랑으로 두 사람의 밀회 장소에 숨어들어 페뷔스를 칼로 찌른다. 에스메랄다는 마녀로 몰려 체포당하고 교수형을 선고받는다. 한편 그녀를 흠모하고 있었던 콰지모도는 교수형 직전 그녀를 구해내어 신성불가침의 피난소인 대성당 안으로 데려간다. 클로드는 이를 알고 에스메랄다에게 자신을 사랑해 달라고 위협하지만 에스메랄다는 거절한다. 클로드는 파리의 부랑자들을 이용해 성당을 습격하게 만들고 콰지모도가 에스메랄다를 위해 필사적이고 영웅적으로 싸우는 사이 그녀를 구출한다는 명분으로 성당 밖으로 유인한다. 변장한 클로드를 알아본 에스메랄다는 그의 애원을 다시 뿌리친다. 이에 클로드는 순찰대를 불러 그녀를 체포하기 위해 은둔하고 있는 수녀의 손에 맡긴다. 그런데 그 늙은 수녀는 옛날 집시들이 자기의 어린 딸을 훔쳐갔기 때문에 집시들을 죽도록 미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에스메랄다가 갖고 있는 부적 때문에 그녀가 자신의 딸임을 알게 되지만 결국 에스메랄다는 교수형에 처해지고 만다. 콰지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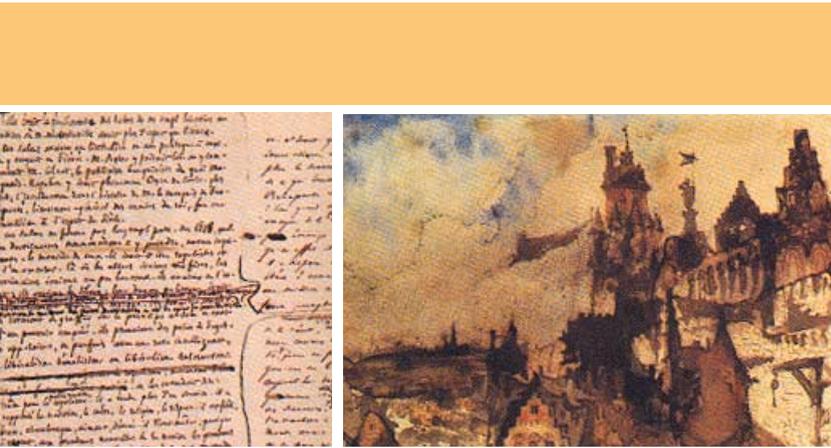
노트르담 드 파리(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의 전면



노트르담 대성당 내부의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



빅토르 위고 기념상(로맹 작품) 파리 빅토르 위고기와 앙리 마르탱가가 교차하는 곳에 세워져 있다.



빅토르 위고의 필체

빅토르 위고가 그린 수채화 '어느 거리의 풍경', 그림의 오른쪽 아래에 교수대가 보인다.



작업을 하는 빅토르 위고 모습, A Marie 그림



타는 듯한 목마름을 호소하는 과지모도에게 물을 먹여주는 에스메랄다, L. O. 메르송 그림.

는 평생 동안 사랑해왔던 클로드 부주교에게 억제할 수 없는 증오를 느끼고 그를 높은 성당 위에서 떨어뜨리고 처형된 에스메랄다의 시체 옆에 가서 죽는다.

중세를 배경으로 한 역사소설

'노트르담 드 파리'는 위고가 중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여 중세 예술의 부활을 꾀한 작품이기도 하다 프랑스 낭만파 작가들은 대체로 고전파 작가들이 그때까지 존경해왔던 그리스·로마의 문화이나 문화에 등을 돌리고, 자기 나라의 국민문화의 모태인 중세 문화를 경애했다. 그런 경향은 영국·독일 등 유럽 여러 나라의 문학에서도 볼 수 있는데, 요컨대 낭만파 작가들에 있어서의 '중세'는 영감의 보물 창고이며, 영혼의 고향이었던 것이다. 위고도 중세 건축의 보물인 노트르담 대성당을 이 소설의 무대로 삼음으로써 중세의 문화나 사회에 대한 열렬한 애정을 나타냈다. 과지모도, 클로드 프롤로, 에스메랄다 등의 주요 등장인물은 모두, 이 대성당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중요하고, '숙명'의 손에 잡혀서 죽어간다.

또한 이 소설에서는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갖가지 잡다한 인물·계급·장소가 등장하고 있다. 루이 11세 같은 국왕으로부터 클로팽 트루유프 일당의 부랑자 및 거지에 이르기까지 귀족·성직자·의사·서민·도둑 등 천차만별의 인간이 그 모습을 보이며, 사랑하고 중요하고 싸우는 모습 속에, 15세기 프랑스 사회의 전모를 남김없이 우리들 눈앞에 펼쳐준다. 노트르담 드 파리는 낭만주의가 꽃피운 새로운 형태의 역사소설인 것이다. 클로드 부주교의 신의 윤리를 거역할 정도의 광포한 욕망과 비참한 몰골의 카지모도의 지고한 사랑은 한 개인의 존재가치에 대한 물음을 내포하고 있으며, 무뢰한들이지만 마스한 연민으로 조망되고 있는 부랑자와 빈민들에 대한 묘사, 위정자와 교회에 대한 신랄한 야유는 위고의 자유주의적이고 인도주의적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다.

클로드 프롤로는 정통파 연금술사

부주교인 클로드 프롤로는 괴테의 희곡 '파우스트'의 모델이었던 16세기의 독일의 마술사 요한 파우스트와 예언서 '세기들'로 유명한 프랑스의 점성가·의사·연금술사 노스트라다무스(1503~66)가 나타나기 이전, 또는 같은 시대로 보아도 좋을 인물이다. 그 중에서도 루이11세(재위 1461~83)가 남 몰래 부주교를 방문하여 연금술의 철학을 듣는 장면은 독자들을 잠시 500년 전의 유럽으로 끌어들인다. 클로드느 젊었을 때는 실험에 의하여 '철학자의 돌'을 얻으려는 정통파의 연금술사였다. 클로드느 프랑스 연금술의 거장, 니콜라 플라멜(1330~1418)과 스페인의 코르도바에서 활약했던 아랍 철학자 아베로에스(1126~98)를 숭배하였다. 그런데 나이와 더불어 박식해진 그는 고금의 문헌을 무턱대고 마구 읽어서, 연금술에 관련이 있는 신비적인 사상이나 구절을 찾아내고 읽어매어, 그것들이 만들어 내는 기괴한 분위기에 도취해 있는 연금 철학자가 되어버린 듯하다.

루이11세가 궁정의사를 따라 비밀리에 방문할 때도, 그는 "연금술이 올린 성과를 두세 가지 말해보지요. 설마 이걸 흠 잡진 않으시겠지요.……얼음은 천 년 동안 땅 속에 묻혀 있으면 수정이 된다.……모든 금속의 출발점인 납은…금은 금속이 아니고 빛이지요.……각각 200년으로 되는 4가지의 주기 중에서, 여러 가지의 다른 금속으로 성장하는 것이지요. 먼저 붉은 비소로, 다음에는 주석으로, 그래서 은으로 되지요. 이걸 분명한 사실이지요."

궁정의 재정 형편이 어려워 금을 구하고 있던 루이11세는 부주교 클로드를 국왕의 연금술 고문으로 명한다. 클로드느 정말 조금 미친 지도 모른다. 노트르담 대성당의 탑 위 높은 곳에는 그의 비밀의 방이 있다. 밤에 이 방의 작은 창으로, 괴상한 붉은 빛이 규칙적인 짧은 간격으로 켜졌다가는 꺼지고 다시 켜지는 것이 자주 보였다. 풀무의 세찬 숨결에 가락을 맞추고 있는 듯한 불빛이었다. **ST**